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보도일시

(인터넷) 2026. 4. 26.(일) 11:00  
(지면) 2026. 4. 27.(월) 조간

배포 2026. 4. 24.(금) 오후

## 잃어버린 바다의 기억, 콩치풀을 찾아서

- 사라진 해양보호생물 '삼나무말'을 찾아 떠나는 동해안 200km 탐사기행 방영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보호생물인 해조류 '삼나무말'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콩치풀: 바다의 속삭임」이 4월 27일(월) 낮 12시 25분 MBC에서 방영된다고 밝혔다.

삼나무말(*Coccoloba langsdorffii*)은 한대성 해조류로서 비늘 모양 잎이 삼나무와 비슷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과거에는 동해안 곳곳에 분포하며 다양한 해양생물의 산란지와 은신처가 되어주었지만, 현재는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식지가 크게 줄어들었다. 해양수산부는 2007년부터 삼나무말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다큐멘터리는 동해안에서 자취를 감춘 신비한 해조류 '삼나무말'을 찾기 위한 여정을 담고 있다. 강원도 최남단 삼척시 고포마을부터 최북단 접경 지역인 고성군 통일전망대 인근까지 200km의 해안선을 따라 삼나무말을 추적하면서 기후위기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고찰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사라진 우리나라의 전통 어촌 문화에도 주목한다. 삼나무말이 풍부하던 과거에는 산란기 콩치를 잡을 때 미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이 때문에 강원도 어촌에서는 '콩치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 45분 분량의 이번 다큐멘터리는 수십 년간 잊혀진 해조류를 찾아 나선 끈기와 취재의 꼼꼼함이 돋보였다는 평가와 함께 제17회 한국 방송기자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MBC 강원영동 이준호 기자는 "이번 기록을 통해 잊혀져 가던 삼나무말의 환경적·문화적 가치가 재조명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다큐멘터리는 기후위기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와 해양생물 보호의 중요성을 잘 전달하고 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해양보호생물 보전을 위해 정책적 역량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환경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현성 (051-773-5310)
	해양생태과	담당자	사 무 관	이윤재 (051-773-5315)



참고

다큐멘터리 『꽁치풀: 바다의 속삭임』 주요장면

